

나 예수와 함께 생활하자

작성일 : 2012. 3. 21. (수)

작성자 : 조미경 (월명동교회, 석막관리)

저녁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낮에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상해요. 오늘 낮에 갑자기 이성의 마음이 밀려들면서 저의 마음이 이상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마음이구나.’ 깨닫고 ‘사탄을 몰아내야겠다.’ 결심하고 ‘악한 사탄을 그냥 몰아내지 말고 전기 고문을 해서 몰아내야겠다.’ 생각하고 찬양을 한 일을 떠올리며 예수님께 여쭙었습니다.

(예수님, 요즘 때가 영적 전쟁의 때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오늘 저에게 이성의 파장을 주며 사탄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저의 마음이 아니지요?)

성지 예수님 말씀

그래, 사탄이 주는 마음이다.
요즘 사소하게 틈만 있으면
사탄들이 노리고 들어오니
항상 조심하며 나 예수와 일체 되어 있어야 해.

(예수님, 영이시라 보이지 않아서 그런가요? 왜 일체 되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예수님을 놓쳐 버리고 생활 가운데 혼자 살아가는지 너무 죄송해요.)

나는 영이고 너는 육이지.
내가 너의 육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육의 눈을 떠서 사람을 바라봤다면
너의 마음의 눈을 떠서 나를 바라봐야 한다.
너는 잠자는 시간 외에 생활하면서
눈을 감고 생활하느냐?

(아니요. 눈을 감으면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눈을 뜨고
생활합니다)

사랑아.
마음이 잠들어 있으면
마음의 눈을 항상 감고 있는 것이다.
잠을 깨고 눈을 떠라.
항상 너와 동행하는
나 예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예수는 영이라 보는 법,
대하는 법에 대해 배우고 알아야
더 가까이 일체 될 수 있는 것이란다.

(마음의 눈을 항상 뜨고 있어야겠어요. 저는 항상 주님
보기를 원하니까요.)

정말 반가운 말이다.
너의 마음이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 있길 원하는 마음에서
가르쳐 줄 것이 있다.

(예수님, 무엇인지 알겠어요. 마음이 항상 깨어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는 거죠?)

내 사랑아.
마음이 깨어 있으니 내 마음 알아차리는
눈치가 무척이나 빠르구나. (하하하 -웃으심)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제가 예수님 말씀 깊이 새겨듣고
꼭 실천해 볼게요.

너의 마음이 항상 깨어 있는 방법이다.
실천하겠다니 가르치는 나의 마음도 흐뭇하구나.

인간의 마음은 가만히 두면
선으로 흘러가겠느냐?
악으로 흘러가겠느냐?
육의 세상 권세 잡은 사탄의 꾀방과 계략으로
항상 악으로 흘러간다.

나는 너의 마음을 주관하고 다스리기 위해
말씀이라는 법을 주었노라.

말씀은 너의 마음이 악으로 흐르는 것을 막아 주며
사탄이 너의 마음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는 보호막과 같은 역할을 한다.

사랑하는 자야.

하루에도 수없이 바뀌는 것이 마음이란다.
그러하기에 수시로 거울을 꺼내어 얼굴을 보며
더러운 것이 묻었으면 닦아 내고
빼뜯어진 것이 있으면 바로잡듯이
수시로 말씀의 거울에
너의 마음을 비추어 보아라.

또한 말씀은 곧 나 예수니
나 예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
수시로 나에게 물어라.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
얼른 돌이켜 돌아와야 하며
빼뜯어진 생각을 하고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하느니라.

(아멘)

너의 마음에 무엇을 담아 둘래?
마음의 그릇은 항상 무엇이든 채워야 한다.

(저는 예수님을 담아 둘래요.)

나도 너의 마음 가득 담기길 원하노라.
나를 온전히 담기 위해서는
너를 비워 내야 한다.
너의 마음에 너의 생각, 주관이 가득한데
나 예수가 담겨질 수는 없다.
내가 담겨진다고 해도 그것은
나의 온전한 모습이 아닌
너의 주관 사상이 섞인 모습이다.
온전한 나 예수라 할 수 없다.
너의 모습이 나왔다가
나 예수도 역사했다가 하는
불완전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

(예수님, 저를 완전히 비워 내고 오직 예수님만 저의 삶
가운데 살아 숨쉬길 원합니다.)

회개하여라.
회개하여 너의 모든 죄를 태워 버려라.

기도하여라.
기도하여 너를 비우고 나의 심정을 받고
나에게 애원하며 매달려 보자.
실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
너에게 가르치며 매달리는 것이 아니냐.

나에게 묻고 행하자.
너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나에게 하나하나
나의 의중과 생각을 묻고 행해 보자.
너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일체시켜 나가자.

(아멘)

하루 3번 기도를 하되 나와 대화하라 하였다.
그 외에 나를 수시로 부르며 대화하라 일렀다.
생활을 함께하자.
사랑하니까 떨어져서 살 수 없지 않느냐.

모두 약속하자.
마음의 눈을 떠
회사 갈 때, 학교 갈 때, 밥 먹을 때,
공부할 때, 청소할 때, 전도할 때,
기도할 때, 모두 나와 함께하자.
선생처럼 잠도 나랑 함께 자자.
잠자면서도 너를 나에게 맡겨라.

생활 속에서 동행하며 역사하는 주 예수